



- Cover Story
- IDI 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4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I Interview

연구/원/소/식



산동사회과학원 연구교류
산동사회과학원은 인천발전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위한 주
제에 대해 논의하고,...

인/천/나/들/이



부평역사박물관 답사기
문화를 재정립하고 지역정체
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



인천국제교류센터 김혜경
팀장과의 인터뷰
토크하우스는 인천에 거주
하는 성인 시민 및 외국인
을 위한 오프라인 외국어
카...

시/정/연/구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바이오산...

도/시/동/향



문화의 섬, 나오시마
카가와현의 나오시마는
동서 2km,...

신/간/소/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산지역 업체 실태조사
부산경제를 중심으로 국
내외 경제흐름...

ID인/터/뷰

인천국제교류센터 김혜경팀장과의 인터뷰

토크하우스는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 및 외국인을 위한 오프라인 외국어 카페입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4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국제교류센터
국제교육팀 김혜경팀장

Q 먼저, 동북아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인천의 든든한 지지자인 인천국제교류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A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 교류 민간 전문기관으로서 인천시의 국제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인천을 널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남북교류 및 청소년 교류, 문화교류 등과 같은 동북아 지역 도시간의 교류 촉진을 도모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지원을 포함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천시민의 국제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인천시의 동북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의 도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국제화 도시건설 목표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민간전문기관으로서 인천을 21세기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Q ‘영어도시, 인천’을 선포한 인천시가 영어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시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시민들이 외국인들과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며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토크하우스란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크하우스란 시민들이 국제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으로서 오프라인 외국어 카페라는 기본개념아래 시민들이 스스로 클럽을 형성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07년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할로윈 파티와 같은 테마파티와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국제화 소양 강연회 등을 통해 단순한 찾 집이라는 개념보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중국어와 일본어를 위한 스터디 클럽,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스터디 클럽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어:6~8명으로 스터디클럽 구성. 수준별 7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중국어, 일어:각 2단계로 나누어 운영) 시민과 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Open), 재미있는 공간(Fun), 유익한 공간(Beneficial)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현재, 토크하우스 클럽리더를 모집하고 있는데, 클럽리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클럽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A 클럽리더란 각 스터디 클럽을 이끄는 반장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 2회(회당 2시간), 2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회비면제 및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클럽리더는 클럽회원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간의 화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청취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쉽을 가진 분이라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카페이므로 외국어능력은 기본이겠지요?

Q 시민들이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비단 외국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 접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는 토크하우스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A 토크하우스를 통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국제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민들의 오픈 마인드와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포용력 향상입니다. 따라서, 토크하우스를 계획하면서, 단순히 외국어 공부를 위한 長 마련보다는 외국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Fun프로그램인 테마파티를 통해 파트락(Pot Luck)파티, 다국적 national day파티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를 경험할 수 있고, 국제화 소망 강연회 등을 통해 다문화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토크하우스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참여방법과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이용하기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A 토크하우스는 성인 남녀라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토크하우스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지원하시면 됩니다.

토크하우스에서는 단지 외국어 공부만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다양함에 대한 관심을 배우려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픈마인드와 능동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토크하우스를 이용하신다면 외국어 능력은 저절로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 6월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시민을 향해 활짝 문 열고 있는 토크하우스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
오픈라인 외국어카페

Talk House

2007년 6월 2주

운영시간
주중 오전10시~오후10시
주말 오전10시~오후6시

클럽활동시간
주 2회(월1당2시간)

회비
월 1만원

연/구/원/소/식

2007년 제1차 여성정책워크숍



2007년 3월 29일 목요일 14:00~16:00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에서는 2007년 3월 29일 본원 1층 대강당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2007년 인천발전연구원 식목일행사



2007년 4월4일 오후 4:00

인천발전연구원 직원들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연구원 근처 철마산에 함께 올라 나무와 꽃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나무에 이름표를달아주고, 도시환경연구실 김용훈 초빙책임연구원의 나무와 꽃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철마산으로 산책을 하러오는 많은 인천시민들에게 나무와 꽃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동성 동아연구소 방문



2007년 4월9일 16:00

2006년 11월6일에 체결한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와 산동성 동아연구소 학술교류 의향서]에 근거하여, 공동연구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인천광역시 시찰 등을 통해 인천-제남 양 도시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갖고자 산동성 동아연구소 임흥 소장의 1명이 본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공동연구주제인 t; 한-중-북 3자 경제현황과 전망t;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산동사회과학원 연구교류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4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2007년 4월 25일

산동사회과학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인천광역시 시찰 등을 통해 인천-산동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인/천/나/들/이

부평역사박물관 답사기

도시경영연구실 임소연 초빙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타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4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문화를 재정립하고 지역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된 부평역사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24평 규모로, 부평에서 출토된 유물과 향토사로 1600여점을 전시조각공원과 전시체험장으로 꾸며져



부평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이 지난 3월 29일 개관하였다.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재정립하고 지역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된

부평역사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24평 규모로, 부평에서 출토된 유물과 향토사로 1600여점을 전시해 두고 있었다.

부평역사박물관은 건물 내부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야외의 조각공원과 전시체험장으로 꾸며졌다.

상설전시실은 부평의 선사시대부터 현재의 역사·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부평역사 I·II 실과 농경문화실로 구성되었다.

박물관에 도착하니 내·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석이나 철문입구 대신 너른 안마당이 박물관 정문을 대신하고 있다. 안마당은 조그마한 야외조각공원으로 꾸며져 있어 현대 미술 조각 공예품 전시를 하고 있었다.

야외조각공원을 뒤로 하고 박물관 내부로 들어서니, 기획전시실과 부평역사 II 실이 눈에 띄었다. 기획전시실은 부평지역 문화인들에게 전시장으로서의 활용과 더불어 수준 높은 문화전시를 통해 부평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날은 개관기념 특별기획으로 **시각이 멈춘 중포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었다.



기획전시실을 나서 부평역사 II 실에 들어서니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평지역 행정·경제·문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이 보였다. 부평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놓은 전시물과 부평을 홍보하는 영상물이 꽤 인상적이었다.

박물관 2층으로 올라서니, 진짜 '박물관'스러운 농경문화실과 부평역사 I 실이 보인다. 먼저 농경문화실은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해양문화권이었던 것과 달리 부평평야를 바탕으로 형성된 농경문화권의 중심지였던 부평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 모습을 축소 디오라마로 보여주고 있었으며, 농경문화와 뗄 수 없는 풍물관련 영상과 사계절별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에 대한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부평역사 I 실은 선사시대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의 부평의 발전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이다.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바닥에 조선후기 고지도가 눈에 들어온다. 이와 함께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부평지역 모습을 미니어처 기법으로 전시해 놓았으며, 일제강점기시대부터 해방 후 부평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전시물들이 있다.

박물관을 관람한 후, 건물 뒤편으로 나오니 19세기 경기도 지역 전통 농가의 모습을 재현한 야외전시장과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시설이 보였다. 박물관 내부의 전시물과 달리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외전시체험장은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부평역사박물관은 주택지구에 자리 잡아 주변 아파트단지의 경관과 어울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늑하면서도 개방적인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전시실 구성에 있어 1층과 2층에 자리 잡은 전시실을 바꾸는 것이 부평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이해하기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향후 부평지역을 대표하는 전시물을 더욱 확충하고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해 나간다면 부평구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시설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부평역사박물관은 입방버스 79번과 마을버스 565번, 566번으로 이용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입장료 : 500원(예정)

시/정/연/구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도시경영연구실 이권형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4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바이오산업은 식품, 의약품, 건강, 신소재, 에너지, 환경 등 응용분야가 넓고 정보기술(IT) 및 나노기술(NT)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산업을 21세기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의 5대 전략산업으로 선택한 바 있다.

인천지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 인프라 및 인적 자원과 인천지역의 입지적 조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바이오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현안중의 하나인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 및 사례 분석과 함께 인천 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혁신역량 분석을 통해 산업의 발전비전 및 전략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인천 바이오산업의 혁신역량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천바이오산업의 혁신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천 바이오산업이 다른 전략산업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집적기반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시설에 강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특허, 법률, 회계, 컨설팅 등 비즈니스서비스업체나 자금조달기관, 유관 협회 및 기관 등 지원기관의 집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조건 면에서는 인천지역이 바이오산업과 전통제조업과의 연계 발전, 바이오 물질 및 제품의 수출입 등에 경쟁 우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지원보다 정책 및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인적자원 관련 정책 환경에 대한 매우 낮은 만족도는 바이오산업이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바이오산업의 인적자원 역량을 부문별로 비교해보면 연구개발 및 생산부문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경영, 마케팅, 정책 부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경영과 마케팅 부문에 대한 낮은 평가는 상대적으로 인천지역에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바이오 제품의 수출이나 내수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 부문은 앞서 언급한 지원정책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도 앵커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기업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나 우수기업의 유치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 바이오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수인재 초빙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저조하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원정책 만족도 측면에서 인재초빙 부문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부문은 혁신역량 평가모델의 5개 부문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학연 연계 연구나 산학간 기술이전, 기업간 협력활동, 그리고 협회활동이나 국제행사 등과 같은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이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천 바이오클러스터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지식집적기반에 의존하고 있고 혁신주체들간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천 바이오산업에는 바이오산업의 발전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네트워크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인천 바이오산업의 비전 및 정책과제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인천 바이오산업으로서는 바이오신약 개발이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 인천지역에서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공부문(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과 민간부문(셀트리온)의 cGMP 시설을 활용하여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바이오 의약품이나 상업화 전단계의 임상시료를 위탁생산하는 기능에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에는 안전성 평가본부의 GLP시설 및 인하대병원과 가천길병원의 GCP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상업화 전단계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 연구기능에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인천지역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바이오물질 또는 제품의 수출입, 해외마케팅, 특허 및 인허가 컨설팅, 바이오기술 평가, 국내외 기술이전, 바이오제품의 품질보증업무, 전문인력 교류 등 국제 바이오 비즈니스에 특화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업체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국내 진출을 위한 자문기능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부분적으로 인천 바이오신약 혁신역량강화 사업단(RIS 사업)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국제 바이오 비즈니스 관련 핵심역량과 사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천바이오산업의 특화를 위해서는 부문별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독립기구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단기간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시/정/연구

인천광역시 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분석

도시경영연구실 정지원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4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후평가의 필요성 대두

- 인천시에서는 그간 행정과 대시민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이들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 자체의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가 미흡함.
- 따라서 각종 시스템의 구축효과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체계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사후평가는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기존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향후 수행될 정보화 사업의 효과적 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정보화사업의 사후 투자효율성 분석을 위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사업 평가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행정정보화사업의 사후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우리 시의 추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적 수행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정보화평가 현황

- ◆ 인천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평가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정보화수준과 정보화 효과를 평가받아 왔으나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성과 측면의 평가는 시도된 적이 없음.
-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보화수준평가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개괄적 수준평가에 그쳐 평가결과의 활용성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이 가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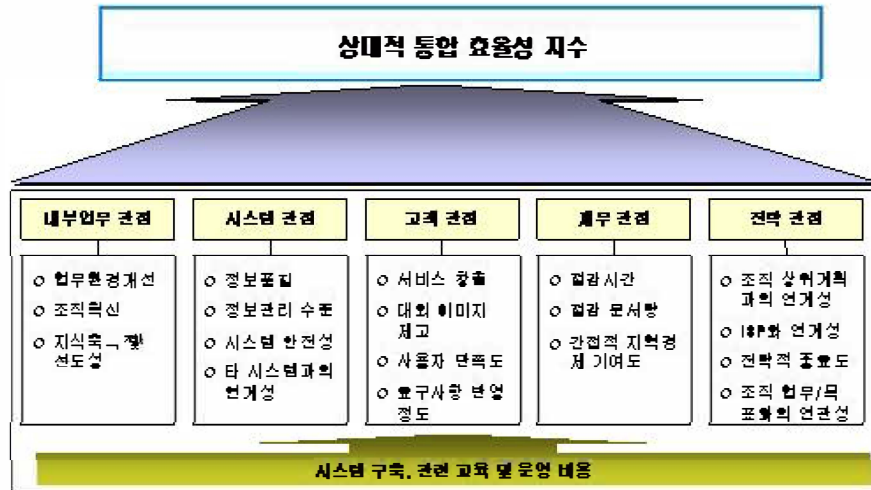
★ 인천시 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 기존 평가방식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

-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방식의 채택 필요성
-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시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실시

◆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사후 투자효과에 대한 평가 실시

- 시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함.
- 시스템별 투자 대비 효과를 내부업무 효율화, 시스템성능, 고객 지원 및 만족도, 재무적 성과,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기여도의 5개 효과발생 관점별로 성과를 측정



<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평가기법의 구조>

★ 정책 건 의

- ◆ 정보화사업 투자비용 절감 방안의 하나로써 국가 전체의 공통수요에 의한 표준화된 정보화 시스템의 발굴 노력이 보다 체계화되고 확대되어야 함.

- 지자체별 공통적 수요에 의해 광범위한 용도를 갖는 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된 표준 시스템 형태로 개발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매우 비용 효율적임.

- 따라서 공통수요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ISP(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과 이를 취합하고 통합하여 범국가적 ISP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의상달식(bottom-up)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 대형과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통합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통합 전산센터등의 제

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

- 사용자의 지속적인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정형화된 채널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정보전략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례화·체계화하여야 함.

- 시스템 활용도에 따른 개인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 자체평가의 확대 및 정례화

- 시스템 도입의 단계별로 적절한 평가의 시행과 이의 환류를 통한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평가와 환류의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해/외/출/장/리/포/트

문화의 섬, 나오시마

도시경영연구실 손주동 초빙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4월 호

검색

▶ 웹진구독신청

카가와현의 나오시마는 동서 2km, 남북 5km, 둘레 16km로 섬 전체에 오래된 화강암과 그 풍화토로 이루어진 구릉성의 작은 섬으로 오카야마 역에서 약 30분 가량 기차를 타고 우노역에 도착하여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우노항에서 나오시마행 티켓을 산 후 선박에 곧바로 탈 수 있다.

문화의 섬 直島 나오시마



카가와현의 나오시마는 동서 2km, 남북 5km, 둘레 16km로 섬 전체에 오래된 화강암과 그 풍화토로 이루어진 구릉성의 작은 섬으로 오카야마 역에서 약 30분가량 기차를 타고 우노역에 도착하여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우노항에서 나오시마행 티켓을 산 후 선박에 곧바로 탈 수 있다.
하지만 기차 도착과 선박 출발 연결 시간이 빠듯하여 조금 힘들지만 배에 탄 직후부터 일본의 도서문화 프로젝트 지역인 나오시마를 느낄 수 있다.

객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선반에 무엇인가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카자키 미쯔구(岡崎 貢)의 나오시마 배경(白景)과 나오시마에서 출판된 서적들이다. 도서는 신발을 벗고 관람할 수 있으며, 나오시마 배경은 배 전체에 전시해 놓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어, 선박은 섬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는 장소이자, 기대를 더 크게 만드는 장소 역할을 한다.



오카자키 미쯔구(岡崎 貢)의 나오시마 배경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에 따라 내릴 준비를 하려고 객실을 나서서 섬을 바라보면,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이 잔디밭 위의 예술 조형물과 여객터미널이다. 그것을 바라보면 '문화의 섬에 왔다'라는 느낌이 절로 든다.

여객터미널에서 배의 시간에 맞추어 섬의 정영(町營)버스가 곧바로 연계되며, 관광지점별 시간에 맞추어 운행하고 있으며, 거리에 상관없이 가격은 100엔(약 800원)으로 통일되어 있다.



섬에서 정영버스를 타고 혼무라 지역의 아트하우스프로젝트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술가에 의

해 오래된 집의 “변형” 과 “복원” 이다. 카도야(角屋)와 같이 200년 전에 세워진 주택을 복원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혼무라 지역에 여러 군데 위치하고 있으며,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식당, 기념품점을 함께 지역 분위기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시키고 있다.

혼무라지역에서 버스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베네세 아트 사이트(Benesse Art Site) 나오시마가 있는데, 그 곳에는 지중미술관, 숙박시설을 병설한 현대 미술관인 「베네세 하우스」가 있다. 두 곳 모두 일본인 건축가 안도다다오(安藤忠雄)가 설계했으며, 클라우스 모네, 제임스 타헬, 우울타 데 상모마리아의 작품들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중미술관~베네세하우스 미술관~베네세하우스 비치(beach)~베네세하우스 공원의 주동선과 해변을 따라 17개 야외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좀 더 머물게 하고,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외부에 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함으로 문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야외작품 등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카도야 외부 전경



Walter de Maria의 작품
" Seen/Unseen Known/Unknown"

나오시마는 세토지역 국립공원에 속한 지역으로 개발 사업에 제약이 있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 관광 진흥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특히, 섬 전체를 살아 숨 쉬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작업이 20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선언하고 친환경적 친환경적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도시가 아닌 문화의 섬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신/간/소/개

인천학연구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4월호 ▼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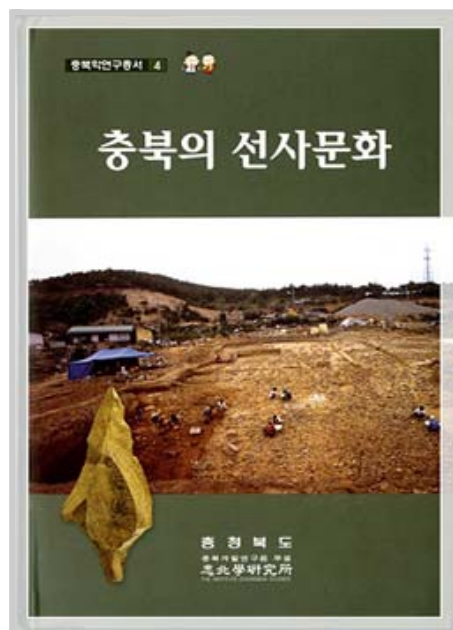
▶ 웹진 구독신청



인천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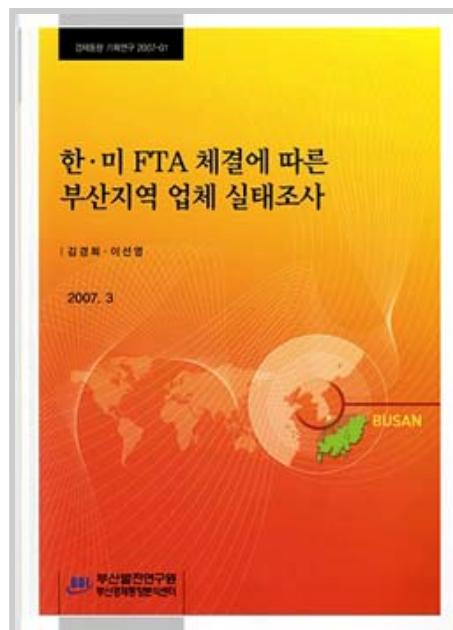
인천학연구원의 2007년도 연구집. 이번 호는 역사와 문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5편의 전문적인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특집으로 여지도서에 나타난 인천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또한 한말 일제초 재인천 일본인의 신문발행과 조선신문,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에 대하여 자료로 수록하고 있다.

충북의 선사문화



충북학연구소

충청북도의 역사적 토대와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충북학 연구 총서 시리즈의 네 번째 결과물. 충북지역의 역사문화의 시원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선사문화를 다루고 있다. 충북지역의 지형과 지질을 개관하고, 구석기 문화와 유적, 중석기 및 신석기 문화와 유적, 청동기 문화와 유적을 다루는 순으로 각각의 시대에 속하는 고고학 자료를 근간으로 한 문화해석을 통해 충북의 선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흐름 및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의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된 연구. 한·미 FTA 협상 추진 현황과 부산지역 대미무역구조를 분석하고 협상 체결에 따른 부산지역 수출입업체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무역관련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지역 업체들의 의견수렴창구 개설 등을 제언하고 있다.